2026.10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79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0월 13일 개최된 '새로운 미래' 개막식

서울대 개교 80주년 기념전 '새로운 미래'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김형숙)과 서울대 미술대학(학장 정의철) · 조형연구소(소장 정의철)가 함께 마련한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전 '새로운 미래'의 개막식이 지난 10월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본회 김홍규(83응미) 상임부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권영걸(69응미) 회장은 김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특별전 '새로운 미래 New Horizons'은 미술대학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앞선 세대의 발자취와 신진작가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조명하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가 세대와 시공간을 잇고, 미술대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형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음악대학과의 협업 공연 '시간의선율'과 신진작가전 참여 작가 아하콜렉티브의 퍼포먼스 '0-Phasing-1 (2026 ver.)'이 펼쳐졌다.

서울대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전 '새로운 미래(New Horizons)'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미대의 출범과 초창기 모습을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는 아카이브전과, 오늘의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감각으로 미래의 여러 지평을 탐색하는 신진작가전을 한자리에서 연결한다.

아카이브전 '함께 그리는 미래'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의 출범과 한국전쟁·피난 시기를 거치며, 서울대미대가 배움과 창작의 터전을 일구어 온 초창기의 시간을 사진과 문서로 소개한다. 서울대미술관의 렉처홀(2F)에서 진행되며, 미술관의 건축적 특성을 아카이브 전시의 구성에 반영하였다.

전시에는 개교 초기의 모집요강과 수험표, 학생증과 수업 노트, 교내 미술전과 졸업미술전의 기록 등이 공개된다. 특히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1회 입학생인 성낙인 선생이 남긴 흑백사진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실기실에서의 작업, 동료들과 준비한 전시, 졸업을 앞두고 남긴 기록에 이르기까지 당시 학생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전쟁과 피난 시기 임시 교사에서도 수업과 창작을 이어 갔던 흔적을 포함해, 이번 아카이브전은 공식 연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관람객에게 전한다.

신진작가전 '오늘의 감각'은 서울대미대 출신 신진작가 김솔이, 김정환, 맹성규, 박주홍, 아하콜렉티브, 양현모, 옥유진, 이문정, 임재원, 황문정 등 10명(팀)이 참여한다. 동양화와 서양화, 공예, 디자인, 조소 등 서로 다른 전공의 작가들은 기술과 이미지, 물질과 몸, 빛과 어둠 등을 소재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미술관 코어라운지(B1·B2)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지평선'(horizon)을 주요 이미지로 삼았다. 무엇이든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작가들은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와 그 안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다. 밤과 낮이 함께 존재하는 '백야'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극야'를 통해 미래가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 제목인 '새로운 미래'는 과거와 단절된 미래가 아니라, 80년 동안 축적된 예술적 유산이 오늘의 창작과 만나 다음 세대의 질문과 상상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뜻한다. 아카이브 속 기록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마주하며, 한 대학의 미술교육이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79호

● 발 행 인 : 권영걸 ● 발 행 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발행일 : [월간 제79호] 2026년 10월 15일
● 편집주간 : 황현수 ● 편집국장 : 배세나 ● 편집주임 : 김정아 ● 편집인 : 문지우 송수빈 엄가을

S-미술아카데미전 내년 3월 개최

'2027 S-미술아카데미전'이 백악미술관(관장 김현일/06동양)의 후원으로 내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백악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이 주관하는 '2027 S-미술아카데미전'은 2026년 봄학기 강좌부터 겨울특강까지 1년간 진행된 S-미술아카데미 미술실기강좌의 수강생들의 작품과 지도 강사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S-미술아카데미전'은 2025년 3월 '2025 'S-미술아카데미전'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2026년 4월에 열렸던 '2026 S-미술아카데미전'까지 매년 백악미술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세 번째가 되는 'S-미술아카데미전'은 S-미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작품과 강사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기념하고, 서로의 여정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6·3동문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63학번 회화과 및 조소과 동기들의 제23회 6·3동문전 '내 인생의 지금'이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7월 작고한 김소선 동문을 비롯하여 김여옥, 김철효, 박윤희, 변희준, 안재기, 정심미, 조용숙, 최홍순 동문 등이 참여했다. 6·3동문전은 1986년 백송화랑에서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0년 동안 예총회관, 백송화랑, 윤희스튜디오, 혜화아트센터 등에서 23번이 열렸으며, 2021년 제18회전부터는 <내 인생의 지금>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회장동정 권영걸(69응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업무협약

본회 회장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지난 9월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세정 분야 연구와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 분야 개선사항에 대한 심층 연구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테우스자산운용·시드에이치와 업무협약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지난 10월 8일 메테우스자산운용, 시드에이치와 세종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교육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 원장은 "AI 인프라 허브 구축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AI 관련 연구·교육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세종시민들이 AI를 통한 삶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순환 시범사업 협약식 참석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지난 9월 29일 세종시와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세종연구원,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을 통한 물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빗물을 저장·재활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후 이를 활용해 학생과 시민들이 빗물 저장과 이용 과정을 체험하는 물순환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가을학기 미술강좌 시간표 9.4~12.24 전 강좌 초·중·고급 과정

	월	화	수	목	금
오전 10:00 ~ 13:00	기초소묘드로잉 콘테와 오일파스텔을 이용한 기초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자유재료 자유소재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 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오후 14:00 ~ 17:00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자유창작 자유재료 자유소재 유인수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ONE DAY CLASS
10.17(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항

접수 방법
접수 : 010-8605-8065 문자
입금 : 301-0252-4434-51 농협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45만원 (15회)
자유크로키 24만원(12회)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재료비 포함

강좌/강사/환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비납부 안내

회원 여러분께서 내시는 소중한 회비는 동창회의 원동력입니다!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 (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내역 (2026.9.16.-10.15) 가나다순

▪ **일반 회비** 유세리(14공예) 이수영(86서양) 조한무(93공예/27년도)

후원금내역 (2026.9.16.-10.15) 가나다순

▪ **광고 후원** 곽병두(84산미) 50만원 황인혜(65회화) 30만원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립니다. 축하·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회원께 배송비 (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는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을 온라인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를 매월 발간해 동문 및 관련단체 등 45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또한 SNS계정(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와 SNS계정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회원께서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후원안내

개인전 및 단체전, 기업 홍보를 하시면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4500명) 발송, SNS(인스타그램, 밴드)업로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금 참여신청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 (사)에스아트플랫폼

인적사항

■ **성명(회사/단체명) :**
■ **구분** □ 동문 □ 일반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후원금 기부 (□에 V체크)

■ **후원금 기부** : 일금 원 (₩)
■ **입금계좌 (100만 원 이상 기부시,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100만원 이상** : 농협 301-0265-4258-61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 **100만원 미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후원회 가입 (□에 V체크)

■ **회비** □ **회원: 연 20만원** □ **이사: 연 100만원** □ **부회장: 연 300만원**
■ **입금계좌 (100만원 이상 기부시,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100만원 이상** : 농협 301-0265-4258-61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 **100만원 미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작품기증 (□에 V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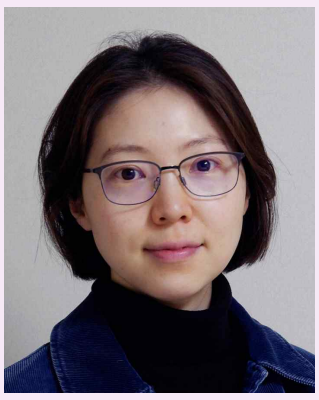
□ **기증작품 :** 총 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T 02-555-1946 (평일10~17시) **E-mail** snuarta@naver.com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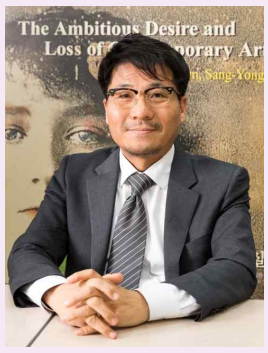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조소과 이은재 교수 임용



이은재(07서양) 동문이 모교 조소과 교수에 임용됐다. 지난 9월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 이교수는 모교 서양화과 및 연합전공 영상매체예술 학사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과정 졸업 및 서양화·판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DK.DT, 우석갤러리, 코너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보안2, 캐비닛온온, 우석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1인 출판사 지하출판소를 운영했으며, 저서로는 '비추고 바라고 어긋나고 좋고', '관객하는 ㅁ'(공저), 'White Box Black Cube'가 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 및 협업, 공연·전시 기획·홍보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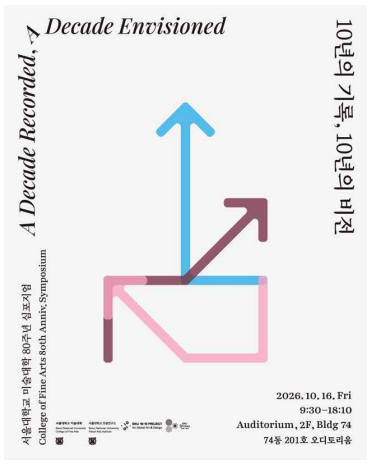
심상용, 박영목 교수 정년퇴임





모교 조소과 심상용 교수와 다자인과 박영목 교수가 지난 8월 31일 자로 정년퇴임을 했다. 심상용(81회화) 교수는 미술사학과 현대미술 비평을 연구했다. 서울대미술관장,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공공미술과 동시대 미술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했고, 미술대학 교육과 문화예술 담론에 기여했다. 박영목(80응미) 교수는 제품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했다. 일본 쓰쿠바대에서 생산미술학을 공부했고, 디자인의 역사와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용자의 관계를 읽는 제품디자인 교육을 이어 왔다.

개교 8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정의철/88산디)은 오는 10월 16일 09:30–18: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오디토리엄에서 개교 8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10년의 기록–10년의 비전'을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민해 온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하고자, 다섯 학과와 세 연계 프로그램이 지난 10년의 기록을 나누고, 다가올 100년을 함께 상상하는 자리이다.

'AI시대 미술과 디자인의 길을 묻다' 특강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는 'SNU Art & Design 10-10 Project', 'BK21four DESIGN 사업단'과 미술대학 80주년, 조형연구소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9일 AI 시대에 미술과 디자인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강연 '픽셀과 물질 사이: AI 시대, 미술관은 어떻게 경험을 설계하는가'를 개최했다. 줌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초청 강사 이현주(01디자인)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물질성(materiality), 공간성(spatiality), 경험성(experience)을 키워드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미술관의 고유한 경험을 살펴봤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작품의 물성과 공간, 관람객의 참여와 머무름을 설계하는 큐레이팅의 역할을 소개하고, AI 시대 미술관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몸의 감각과 관계를 설계하는 공공적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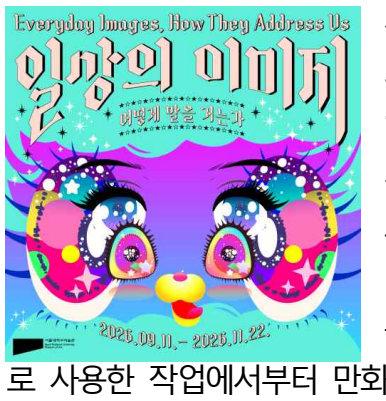
'서울대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역대 수상작가 초대전

'서울대학교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역대 수상작가 초대전 '결-겹쳐진 감각 Grain - Layered Senses'가 열린다. 온라인 전시는 믐(MEUM)에서 인터랙티브 전시(10.11 - 18)와 아카이브(10.19 - 27.10.19)가, 오프라인 전시는 10월 13 - 18일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온라인전에서는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수상 이전의 작품들을, 오프라인전에서는 수상 이후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카조아 신진작가상은 '마카조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 서울대 대학원 동양화과의 젊은 작가들 중 우수한 활동을 한 작가를 매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전시 총감독은 신하순 교수, 큐레이팅 소미정, 참여작가는 김종규, 소미정, 양수연, 윤이랑, 정성윤, 정재원, 한효니이다.



서울대학교미술관소식

일상의 이미지, 어떻게 말을 거는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김형숙/85서양))은 '일상의 이미지, 어떻게 말을 거는가' 전시를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팝아트를 특정한 양식이나 작가군으로 한정하기보다, 대중문화와 일상의 이미지가 미술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방식을 함께 살펴본다. 대중매체와 소비사회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사용한 작업에서부터 만화와 캐릭터의 차용, 전통 회화와 대중문화 이미지의 결합,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다룬다. 참여작가는 권기수, 권오상, 김화현 등 14인이다.

개교 80주년 기념 미술관 특별전

서울대학교미술관은 서울대 개교 80주년 기념 미술관 특별전 '새로운 미래 (New Horizons)'를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개최한다. 개교 80주년의 가치인 '상상·도전·미래'를 예술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특별전으로, 신진작가전·미술대학 아카이브·학생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연결한다.

제120회 정기공연 '한여름 밤의 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극예술연구회(이하 미대극회)가 제120회 정기공연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낭만 희곡'한여름 밤의 꿈'을 서울대 인문소극장에서 올린다. 공연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하루 2회씩 총 6회를 갖는다. 1966년 시작된 미대극회는 모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무대, 연출, 조명, 음향, 의상, 연기 등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을 탐구하고 실현해 온 전통있는 동아리이다. 매 학기 정기공연을 거듭하며 120회라는 깊은 역사로 이어졌으며, 조형적 감각과 무대 예술을 결합한 미대극회만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매 공연 동문과 재학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제120회 정기공연 크루]
▲연출 : 김민서 ▲조연출 : 정태환 ▲기획 : 서연경 ▲연기감독 : 김하늘 ▲배우 : 권도윤 김민준 김선우 김수민 김재현 김하연 박소은 배진혁 송인규 이예령 임수현 ▲앙상블 : 곽예나 신채원 유민하 윤병석 ▲무대 : 김가형, 고원재 권도윤 김나연 명채린 윤병석 이재윤 조해인 홍연조 ▲조명 : 강승이 김민주 오아림 조이빈 진은서 추소이 ▲음향 : 정민혁 김도명 김동주 김시연 김효원 ▲의상·분장 : 이나현 김나현 김하윤 박가연 신채원 이서현 ▲디자인 : 백윤주 유민하 이시현 ▲영상 : 김현진 김려원 유지우 유영선

정년퇴임 소회



심상용(81회화)

*

모교에 늦게 부임한 탓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해 서양화를 전공했고, 파리에서는 미술사와 미학, 예술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미술비평과 전시기획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20년 동안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에서, 다시 10년 동안 모교 조소과에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곳에 오래 머물기보다 여러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었나 싶습니다. 하나의 경계를 넘으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렸고, 그때마다 새로운 질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직이라 여겨온 교직을 모교에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과분한 복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6년에 걸쳐 미술관장 보직을 맡으면서 정작 대학과 학과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함께했던 선배·후배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조소과뿐 아니라 미술교육 협동과정 겸무 교수로 학생들과 만났던 시간 역시 떠나는 지금, 새삼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야 지나온 시간의 무게와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

후배 작가들과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오래전 제가 서울미대 입학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태 교수님께서 지원자였던 제게 "자네, 밥을 굶을 준비됐나?"라고 물으셨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말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술은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 창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세계와 치열하게 만나야 하고, 역사를 오래 곱씹어야 하며, 남보다 깊이 느끼고 자신만의 표현 언어를 끊임없이 벼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오래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면 걸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사유의 에너지를 축냅니다.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길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작가가 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작가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재능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과 신념, 그리고 끝내 그 길을 걸어갈 용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년을 맞은 지금은 프로 스포츠 선수로 치면 비로소 '자유계약 선수'가 된 기분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침에 눈을 떠도 오랜 습관처럼 가야 할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해진 시간과 역할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다시 생각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3년쯤 먼저 학교를 떠난 한 선배가 퇴임 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한동안은 그냥 지내보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옳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보려 합니다. 서둘러 다음 목적지를 정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서, 어디에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지 기다려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쯤은 저절로' 다음 생각이 찾아와 주지 않을까요.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다시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설렘으로 아침잠을 깨면서 말입니다. 서양화에서 미술사와 미학으로, 비평과 전시기획에서 미술관 행정으로 여러 경계를 건너왔듯이, 이제 또 하나의 경계를 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게 경계를 넘는 일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떠남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다음 시간으로 건너가는 일로 정의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를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시고 때마다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후배 동문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나온 길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회소식

사미인곡, 잔디광장을 가을 카니발로 물들이다

서울대학교 4개 단과대학 연합 가을축제 Grand Carnival



2026 사미인곡 축제: GRAND CARNIVAL

지난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잔디광장에서 사회과학대학·미술대학·인문대학·음악대학 연합 '사미인곡'의 가을축제 'Grand Carnival'이 열렸다. 네 단과대학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사미인곡'은 재작년에 이어 다시 연합을 이루어 축제를 준비했다. 가을의 활기와 카니발의 즐거움을 캠퍼스 한가운데 펼쳐 보인 하루였다.



잔디광장을 따라 이어진 축제 부스와 방문객들

축제의 낮 시간에는 다양한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낮 내내 부스마다 줄이 이어질 만큼 많은 학내 구성원이 축제에 함께했고, 잔디광장은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로 활기를 띠었다. 각 부스를 둘러보고 체험을 즐기는 모습에서 오랜만에 열린 연합 축제에 대한 관심과 반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잔디광장 중앙에 설치한 에어바운스 체험 공간

광장 한가운데 마련한 에어바운스 체험 공간도 큰 인기를 모았다. 축제장을 찾은 학생들이 에어바운스를 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를 중심으로 광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경쾌해졌다. 넓은 잔디광장과 알록달록한 시설물이 어우러져 'Grand Carnival'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풍경을 만들었다.



대형 스크린으로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한 야장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펼쳐진 '야장'이었다. 대형 에어스크린으로 야구 경기를 상영하고 잔디 위에 테이블을 마련해, 누구나 야시장에 온 듯 머물며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먹거리, 사람들의 응원이 어우러진 야장은 준비한 테이블이 만석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낮의 카니발과는 또 다른 정겨운 분위기가 잔디광장을 채웠다.

학내 구성원들의 좋은 반응 속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기뻤다. 함께해 준 모든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번 'Grand Carnival'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재작년에 이어 다시 뜻을 모은 사미인곡의 연합이 앞으로도 이어져, 각 단과대학의 색깔을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학생회장 손예은(24동양)

서울대소식



제80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제80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지난 8월 28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4명, 석사 1,278명, 박사 833명 총 3,135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미술대학에서는 박유채 졸업생이 총장상(최우수)을, 장현서 졸업생이 총동창회상을 받았다.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졸업생들에게 "대격변의 시대를 맞아 질문하고 배우며 서로 다른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어 유총장은 "호기심과 용기로 자신만의 질문과 해법을 찾아가며, 무한한 상상과 담대한 도전을 통해 이웃과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해천 김현철 이재영 강준호

총장 예비후보 4명 선정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강준호·김현철·이재영·최해천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0월 7일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예비후보자 정책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1위는 강준호 교수(체육교육과), 2위는 최해천 석좌교수(기계공학부), 3위는 이재영 교수(영어영문학과), 4위는 김현철 교수(국제대학원)로 결정됐다. 이후 이사회로 추천이 이어지면, 이사회가 이들 중 최종 1명을 선출하면서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이번에 선출될 제29대 서울대 총장은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수시경쟁률 7.37:1, 디자인과 24.29:1로 최고

서울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지난 9월 9일 마감된 결과, 모집인원 2233명에 1만646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지난해 8.13:1보다 낮아진 7.37:1이며 디자인과가 24.29:1로 가장 높았다. 올해 모집 인원은 첨단 분야 증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30명 늘어난 반면 지원자는 1445명 줄면서 수시 경쟁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은 1529명 모집에 1만22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7.98:1로 지난해 9.04:1보다 떨어졌다. 지역균형전형은 523명 모집에 2408명이 지원해 4.6:1의 경쟁률로 지난해(4.75)보다 낮아졌다. 일반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디자인과(24.29), 사회학과(18.60), 사회복지학과(16.57), 응용생물화학부(15.80), 철학과(15.44) 순이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전기정보공학부(4.19), 경제학부(4.55), 컴퓨터공학부(4.67), 노어노문(4.89), 불어불문(5.00) 순이었다. 의학과(11.12)는 지난해(12.7)보다 낮으며, 치의학과는 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약학계열(9.91), 식품/동물생명공학부(8.83), 응용생물화학부(7.56), 의학(7.28), 체육교육(7.25) 순이었다. 정치외교학부(1.82), 통계학과·영어교육과(2.00), 경제학부(2.43), 건축학과(2.50) 등은 경쟁률이 낮았다.



PERFECT 만만데이

서울대는 지난 9월 10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에서 대표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만만한 기부 10주년 성과보고회 'PERFECT 만만데이'를 개최했다. 2016년 첫 출범 이후 매월 만 명의 만원이 만든 만만한 기부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누적 모금액은 약 348억 원, 누적 건수는 17,084건에 달하며 동문(51%)과 교직원(29%), 학부모(15%) 등이 참여했다.

판결문 최적화 AI비식별화 기술개발

서울대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재진 교수 연구팀이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AI 비식별화 모델 'Thunder-DeID+'를 개발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판결문의 개인정보만 정확히 가리고 주변 문맥은 최대한 보존하는 한국어 맞춤형 AI 비식별화 기술로, 분리 비율이 기존 AI의 토크나이저 적용시 70.8%에서 새 토크나이저 적용시 99.7%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름·연락처 같은 직접 식별정보뿐 아니라 직장·사건 장소 등 간접 식별정보까지 다루기 위해 개인정보 분류체계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판결문 5천872건을 학습시킨 모델의 개인정보 탐지 성능은 89.8%로, 가장 높은 성능의 기존모델보다 16.5%포인트 높았으며, 일반 민감 문서에 적용하는 실험에서는 일반 문서 50건을 추가 학습했을 때 88.4%, 1천건을 추가 학습했을 때 93.9%의 개인정보 탐지 성능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행정문서와 기업 업무문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술대회 <EMNLP 2026>에 약 3%에 불과한 구두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개교 80주년 KBS 열린음악회

서울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월 13일 서울대 종합운동장에서 구성원 및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개교 80주년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KBS 방송 녹화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동문인 김소현, 손태진, 이적, 포레스텔라(조민규, 고우림)을 비롯해 아일릿, 윤하, 케이윌 등이 출연했다.

관악사 재건축으로 대체 주거 추진

서울대와 서울시의회, 관악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악학생생활관 재건축에 따른 주거공간 부족 해소에 나섰다. 내년 재건축으로 수용인원이 712명 줄지만 현재 확보한 학외 공간은 71명분이다. LH는 72명 규모 기존 시설과 신림동 일대 130명 규모 신축 시설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사 ㈜잇그린과 협력해 교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나섰다. 관악학생생활관은 지난 9월 18일 생활관에서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활성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활성화와 학생 참여형 환경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학생생활관 관계자와 학생, 배달의민족·잇그린 관계자, 지역 외식업주 및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약 6,500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관악학생생활관은 배달음식 일회용기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와 반납 거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보호를 넘어 서울대의 'LnL(Living and Learning)' 교육 방향과 연계해 친환경 실천을 학생들의 일상 속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다회용기 반납·회수 체계와 학생 이용 편의성, 참여 인센티브, 지역 외식업주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대와 배달의민족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타 대학과 지역사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삶스런 예술 전파사

서울대 문화예술원이 관악문화재단 싱글벙글교육센터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샤로수길 인근 공실 상가에서 '디지털과 만나는 관악마을창작소 시즌3' 팝업 전시를 열었다. '새삶스런 예술 전파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악의 소리와 기억을 AI 및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사운드 작품, 포토북 등을 선보였으며,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과 '전파사 작업대' 모티브의 감정 일기 쓰기 등 체험 행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융복합 예술을 경험하게 했다.



서울대 80주년 예술주간

서울대는 관악문화재단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계를 넘은 모두의 예술-서울대 80주년 예술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협력은 캠퍼스를 넘어 서울대의 우수한 창의 예술 자원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구민의 일상에 예술적 감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에서는 서울대 학생 3인의 조형예술 전시(▲위사진)가, 관악아트홀에서는 인문대 서예회의 작품전이, 관악구청 광장에서는 서울대 52인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렸다.



수요강좌

서울대학교박물관이 하반기 수요교양강좌 '건축의 유산: 시대를 잇는 풍경'을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박물관 강당에서 연다. 박물관은 관악구와 매년 봄과 가을,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에게 수요교양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현대의 건축과 도시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쌓이고 겹쳐진 공간의 기억을, 하반기에는 시대에 따라 이어져 온 건축의 모습을 살펴보고, 근대에 도시와 건축이 변화하는 과정까지 함께 다룬다.



총장의 꿈

서울대 역사기록관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3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악캠퍼스 75동 기획전시실에서 '총장의 꿈-서울대학교 초기 총장들'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경성대 총장과 서울대 제1대부터 제12대까지 총장의 재임기를 중심으로 시대마다 달랐던 대학의 과제와 총장들의 운영 철학과 그 안에 담긴 교육적 가치를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 개최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9월 2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2026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6번째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 서울대 창업 생태계 의 현황과 성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동문 창업팀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동문 및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에 이어 서울대 내 14개 창업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Next SNU Crown'에는 서울대 창업 지원기관 협의체가 추천한 스타트업 중 서류 평가로 5개 팀이 본선 진출, 이날 발표 평가와 청중 투표를 통해 수상팀이 결정되었다. 창업지원단은 앞으로도 창업 지원기관 협의체 공동 프로그램 확대와 동문 기부 기반 창업지원 기금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깡총깡총 두리번두리번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이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깡총깡총 두리번두리번'을 진행해 트레일러닝으로 몸의 감각을 깨우고, 이를 예술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제안했다. 8일 백유진 연출이 이끈 '산을 감각하는 낯선 시선 배우기' 워크숍, 9일 미디어 아티스트 김지현 디자이너와 'AI로 환상의 숲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됐다. 10일 보테니컬 아티스트 이유진 디자이너가 이끄는 '산의 재료로 식물 오브제 만들기' 워크숍이, 11일 라운드테이블 '산을 쓰는 우리'를 통해 산 문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9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통일의식조사 20년 : 멀어진 통일의 꿈, 익숙해진 분단 현실'을 주제로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명문화 후 남북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인식이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선호하며, 대립 국면의 관리 방식으로 '실용적 협력'을 지지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긍정 인식이 뚜렷이 하락한 가운데 자국 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인됐다. 조사결과는 ▲통일에 대한 인식 : 통일 필요 39%, 현재대로 31.5% ▲북한에 대한 인식 : 핵무기 보유에 위협감 86.4%, 대화·타협 불가능 78.3%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평화공존 61.6%, 핵무장 찬성 61.1%, 남북합의 계승 67.1%, 대북전단 살포금지 61.6%, 개성공단 재가동 34.5%, 금강산관광 재개 45.6%, 북한인권 문제제기 58.8% ▲주변국 관계 인식 : 가장 친밀한 국가는 미국(71.9%),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47%), 중국(32.2%), 러시아(7.1%), 일본(6.9%), 미국(6.9%) 순 ▲북한이주민에 대한 인식 : 동일경쟁 동의 79.8%, 선택적 입국 60.2%, 20대는 결혼상대자 기피 66.2%였다.



무료 아동 문화예술 워크숍

무료 아동 문화예술 워크숍 'BOO 탐사대'가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 제1파워플랜트에서 진행됐다. 서울대 파워플랜트가 아이들의 거대한 탐사 공간이 되어 파워플랜트 곳곳에 숨겨진 흔적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미지의 존재 'BOO'와 그들이 살아온 세계를 상상해보았다.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BOO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BOO 탐사대의 이야기는 워크숍 뒤에도 계속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시가 열렸다. 파워플랜트 곳곳에서 발견한 소리와 빛, 표면의 흔적. 아이들이 그 단서에 질문을 붙이고 자기만의 BOO를 상상한 과정이 전시로 이어졌다.

중앙도서관 특별전 '세대를 잇는 서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함께 특별전 '세대를 잇는 서가'를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중앙도서관 본관 4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동문들이 추천한 도서를 통해 선배 세대의 지혜와 연륜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책을 매개로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일궈 온 동문과 미래를 이끌어 갈 재학생 사이에 지식의 가교를 놓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 간 경험과 사유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총동창회소식



장학금 총 1510명에 43억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준식) 장학재단인 관악회(이사장 이준식)가 지난 8월 24일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재단법인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72기계) 관악회 이사장겸 총동창회장과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 명예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채혜선(82회화) 미술대학동창회 상임부회장 등 기부자와 내빈 20여 명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026학년도 2학기에 서울대 후배 768명에게 총 21억 9253만 85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학기를 포함하면 올해 총 1510명에 43억2253만원이다. 장학금 지급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과 금액이다. 이번 학기 장학생은 학사과정 626명, 석사과정 73명, 박사과정 23명, 석·박사통합과정 43명 등으로 구성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학생회·동아리·운동부 등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재학생과 기부자·학교 추천 장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

관악회 장학사업은 1980년 장학생 13명에게 159만 9250원을 지급하며 시작되어, 2026년 8월 현재 관악회가 운영하는 특지·기금 장학회는 181개에 이른다. 수여식 말미에는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장학생들은 퇴장하는 기부자들에게 박수로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칠곡 매원마을 탐방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9월 3일 제13회 본회 국토문화기행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동문 60여 명이 경북 칠곡 매원마을 일대를 찾아 광주이씨 종가의 삶과 조선 선비의 학문 전통을 살펴봤다. 이날 동문들은 석담종택과 감호당, 매원마을 고택, 박곡종택, 동산재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평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석담종택도 이날 특별히 문을 열어 동문들을 맞았다. 광주이씨 대종회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동문들과 동행하며 각 종택과 재사의 내력을 설명했다. 매원마을은 17세기 석담 이윤우(1569~1634)가 터를 잡은 뒤 광주이씨 집성촌으로 발전한 곳이다. 지금도 종택과 고택, 재사 등이 곳곳에 남아 있다. 2023년에는 마을 전체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후학을 가르치던 강학 공간인 감호당은 퇴계 이황의 학맥을 계승한 석담이 세운 배움의 터전이다. 동문들은 감호당을 나온 뒤 고택과 골목 사이를 천천히 살폈다. 이어 찾은 귀암고택에서는 귀암 이원정의 13대 종손인 이필주 종손이 문중의 내력과 불천위제사, 대대로 이어온 선비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곡종택에서는 조선 선비의 역사 위에 겹쳐진 근현대사의 흔적을 마주했다. 종택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동산재는 광주이씨 석전문중 3대의 재사가 한 울 안에 모여 있는 곳이다. 동문들은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을 차례로 살펴보며 조상을 기리고 문중의 전통을 이어온 재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칠곡군에서도 동문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떡과 선물을 전달했다.

대학동문골프 최강전 여자부 3연패

구자영(86제약) · 박혜선(93치의학) 동문이 지난 9월 1일 열린 'NH올원뱅크·아시아투데이 제17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두 동문은 우승 상금 500만원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서울대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여자부 우승을 이어가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2014년 창단된 서울대 동문 골프선수단(단장 송우엽)은 각 단대 싱글플레이어로 구성돼 3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종섭 총동창회 명예회장이 초대 회장을,김동진 모교 명예교수, 손길승 SKT 명예회장, 홍성관 상암상사에너지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송우엽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창단 때부터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찬포럼

서울대총동창회 주최 조찬포럼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특별 연사로 나선 미래탐험연구소 이준정 대표는 'AGI시대, 기술주권과 문명의 전환'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현황과 국가·기업·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논했다. 이 대표는 KAIS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30여 년간 산업기술을 연구했다. 현재는 과학기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정 모교 전임 총장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등 각계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동문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 참석자 전원에게는 책 '호모 인텐티오'(미래탐험)가 제공됐다.

서울대총동창회장배 대학여자축구대회



서울대총동창회가 후원하고 서울대 여자축구부가 주관한 '제11회 서울대총동창회장배 전국대학여자축구대회 사-컵(SHA-CUP)'이 지난 8월 29~30일 개최됐다. 서울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 여자축구동아리 12개 팀, 총 29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연세대 여자축구팀 W-KICKS가 성균관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대 팀은 8강에서 탈락했다. 올해 대회는 'Football Festival for All'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승패를 넘어 더 많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자신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대총동창회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3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다.

11월 등산트래킹

ㅇ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10시
ㅇ 장소: 남산 둘레길
ㅇ 참가비: 2만원(오찬 제공) ※10월 29일 이후 신청취소시 환불 불가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행사명, 성함, 대학,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11월등산)
ㅇ 문의 : 담당자 02-879-8204

11월 조찬포럼

ㅇ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ㅇ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ㅇ 강연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ㅇ 주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외교정책과 세계질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ㅇ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행사명, 성함, 대학,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or.kr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91(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11월조찬)
ㅇ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Hoon Kwak: Recent Works 곽훈(59회화)



곽훈 동문의 개인전 'Hoon Kwak: Recent Works — 곽훈: 근작'이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피앤씨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할라잇 Halaayt〉 연작의 마지막 여정과 곽훈 동문의 새로운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드로잉 작업을 함께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업들은 할라잇 연작의 마지막 시기 작품들로, 화면은 이전보다 한층 청명하고 추상적으로 읽힌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신작시리즈의 종이 작업에서 곽동문은 다시 오일, 연필, 종이 콜라주라는 작가의 대표적 재료로 돌아간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연작이 종결되는 지점과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시이며, 곽동문의 회화가 현재 어떤 변화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To the Island 심문섭(61조소)



심문섭 동문의 개인전 'To the Island'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6층 아트홀(롯데갤러리 잠실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롯데갤러리가 2023년부터 세계 각지의 프리미엄 와인과 동시대 미술을 연결하는 '아티스트 콜라보 와인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그 네 번째 여정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심문섭 동문과 미국 나파 밸리의 명문 와이너리 프리마크 아비(Freemark Abbey)가 함께 한다. 심동문은 오랜 시간 조각을 통해 자연과 물질의 존재 방식을 탐구해 왔다. 나무와 돌, 흙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기보다 재료가 지닌 고유한 성질과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한국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00년대 이후 이어지는 회화 연작 'The Presentation'은 이러한 조각적 사유를 평면 위로 확장한 작업이다. 그의 화면은 자연의 풍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붓질과 겹겹이 쌓인 색의 층위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생성 과정을 '현전(Presentation)' 시키는 공간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강소(61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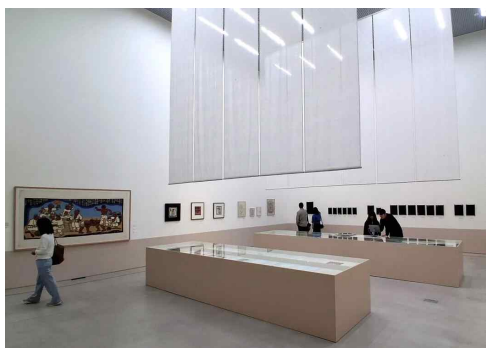
이강소 동문의 개인전 '이강소: 일어나고 사라지는'이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 작가의 대표작을 소개하거나 작업을 되짚는 데 머물지 않는다. 국내외 전시와 협업한 패키지를 선보여 온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이번에 롯데뮤지엄과 손잡았다. 이강소 동문이 오랜 시간 이어온 실험과 사유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이루어온 중요한 흐름을 새롭게 마주하고, 그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호텔 곳곳에서 자체 기획 전시를 연다. 이동문의 개인전을 감상하고 호텔에서 쉬는 아트캉스(아트+호캉스) 프로모션으로 투숙객의 문화예술 경험을 넓히고자,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의 숙박에 개인전 관람을 결합했다. 프로모션 기간 두 호텔의 투숙객에게는 작가의 대표작 '바람이 분다'를 담은 한정판 아트 키 카드 홀더도 제공한다. 이동문은 1970년대 실험미술을 시작으로 회화와 조각, 사진, 판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간, 공간, 관계를 탐구해 왔다.

곳 이어지는 연 민정기 · 서용선 · 정종미 · 이종송



민정기(68회화), 서용선(75회화), 정종미(78회화), 이종송(83동양) 동문과 김선두 작가의 기획전 '곳 이어지는 연'이 지난 10월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갤러리 U.H.M.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5인 작가의 다채로운 회화와 한국화 작품을 통해 장소와 예술가의 깊은 인연을 조명한다. 유년 시절의 기억, 오랜 시간 관찰해 온 풍경, 역사적 흔적이 서린 공간 등 다섯 작가가 삶의 호흡을 나눈 '장소'에 주목한다. 작가들은 물리적 공간을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반복과 회귀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심상으로 전환했다. 전시 기획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특정 장소를 대하는 태도와 통찰이 관람객의 시선과 교차하는 자리"라면서 "관람객 각자가 마음속에 품어온 고유한 장소와 새로운 연(緣)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 오윤(65조소/1946-1986)



오윤 동문의 작고 40주기를 맞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자료 기획전 '오윤'이 8월 27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리게 된 것은 2024년 작가의 유족이 오윤 동문의 작품과 판각, 드로잉 등 860건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미술관 학예연구팀이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2년간 분류·정리해 연구소장자료 기획전 '오윤'을 선보이게 됐다. 오동문은 대학 재학 시절이던 1969년 '현실동인'을 창립했고, 1979년에는 '현실과 발언' 그룹에 참여하며 강렬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문학·출판계와도 긴밀하게 교류하며 판화와 출판미술의 영역을 확장시킨 문화행동가이기도 했다. 한편 오윤 40주기 판화특별전 '새김에서 각인으로: 1946~1986, 오윤의 궤적'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려 오동문이 생전에 찍은 판화들과 사후 유족이 원판으로 찍은 판화 등 187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됐다.

지필묵 紙筆墨 60년 오용길(65회화)



오용길 동문의 60여 년 화업을 조명하는 '지필묵紙筆墨 60년: 오용길의 작품세계'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열린다. 오용길 동문은 전통적인 지필묵의 기법과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한국의 산천과 자연 풍경을 주요 소재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는 오동문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60여 년에 걸친 창작 여정을 한자리에서 살펴보는 회고전이다. 자연을 작가의 감성과 해석을 통해 사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한국화의 전통이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이룬 예술적 성취와 한국화의 확장 가능성을 조명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관계자는 "오용길 화백의 작품세계가 변화해 온 과정과 함께 한국화가 전통을 계승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온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고 밝혔다.

기억 이후의 풍경 김대영(7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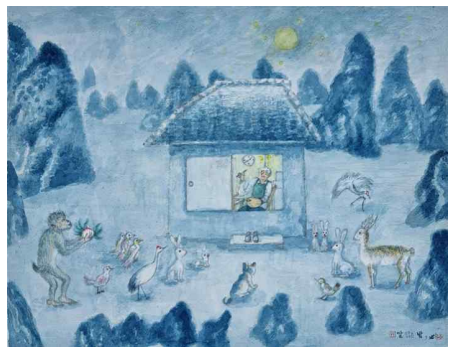
김대영 동문의 개인전 '기억 이후의 풍경'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춘천시 갤러리 예술공감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김작가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쌓인 기억과 상처가 어떻게 재생되고 치유되는지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했다. 김동문은 자연의 시간 속에서 피고 지는 넝쿨과 붉은 산당화, 복수초, 진달래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지나온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크릴과 목탄, 수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절제된 색채와 질감을 구현, 이를 통해 자연의 강인한 복원력과 삶의 자취를



정교하게 시각화했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작가는 춘천 출신으로 평창비엔날레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예술공감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그리움도 오래 그리면, 풍경이 된다 이광택(80회화)

이광택 동문의 45번째 개인전 <그리움도 오래 그리면, 풍경이 된다>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춘천역 '문화공간 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시간의 그늘에 남은 고향집 풍경과 짙은 색으로 채색된 소양강, 자망, 낡은 집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인간의 내면과 삶, 마음의 언어를 표현하고자 한 이번 전시는 고향 춘천의 밤과 낮, 흘러간 하루하루의 기록을 화면에 담는다. 오래된 풍경과 골목, 사람들의 삶에 스민 기억은 작가의 손을



거쳐 그리움의 풍경으로 다시 태어난다. 작가는 "인간들의 내면과 삶과 마음의 언어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국 사천미술학원 유화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3년 강원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제2회 청선창작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춘천을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무의 기억 이종송(83동양)

이종송 동문의 초대전 '나무의 기억'이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에 위치한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자연과 풍경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스케치해온 이종송 동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나무'를 주제로, 생명이 견뎌온 시간과 자연 속에 축적된 기억을 화면에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인도와 티베트, 네팔 히말라야, 차마고도, 키르기스스탄 등 오지를 10여 차례 여행하며 현장에서 스케치하고 작품을 제작해왔다. 차마고도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천연



안료와 벽화기법에 관한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자연과 전통 회화 재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왔다.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동문은 국내외에서 5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초·중·고 미술교과서에도 수록됐다. 현재 건국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Through 양혜규(90조소)

양해규 동문의 개인전 'Through'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028년 6월 12일까지 미국 뉴욕주 디아 비컨(Dia Beacon)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디아 비컨의 두 개 층에 걸쳐 새로운 작품들을 구상한 최초의 전시이다. 빛과 어둠, 공중에 떠 있는 공간과 지하 공간이라는 장소 고유의 이중성에 반응하고, 고대 중국 철학인 오행 사상에서 영감을 얻은 양혜규 동문은 건물의 주요 축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 축이 갖는 색채적 연관성을 탐구한다. 이 양방향 전시는 여러 개의 독립적이면서도 통합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 전반에 걸쳐



양동문은 아방가르드 작곡가이자 정치활동가인 윤이상 작가의 음악 작품 'Images'를 다채롭게 변형시키며, 고대의 존재를 현대 매체를 통해 형상화하는 윤이상 작가의 접근 방식을 반영했다.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양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 후 1994년 독일로 이주하여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학교 슈테델슐레에서 마이스터슐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7년부터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Memento Mori: 삶을 환기하는 생명의 시선 김남표(91서양)

김남표 동문의 개인전 'Memento Mori: 삶을 환기하는 생명의 시선'이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나마갤러리에서 열린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신작 'Memento Mori' 연작을 중심으로,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 변화를 응시한다. 기존의 Remember와 Sunflower 연작에서 다뤄온 기억, 감정, 시간의 문제를 화병 속 꽃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어간다. 사라짐을 예고하는 흔적은 현재의 아름다움을 약화



시키기보다, 그것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한다. 작가는 이번 연작에 대해 "가장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은 이미 시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장면을 통해 회화의 감각과 표현 가능성을 탐구해 왔으며, Instant Landscape를 비롯한 다양한 연작을 발표했다.

흑백의 분투 윤기언(92서양)

윤기언 동문의 개인전 '흑백의 분투'가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OCI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수묵을 매개로 인간과 자연, 의도와 우연이 서로 맞부딪히는 과정을 탐색하는 전시이며, 흑과 백은 화면 안에서 획과 여백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일상의 풍경 속에 공존하는 인위와 자연의 경계를 상징한다. 작가는 소도시로 거처를 옮긴 이후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 풍경에 주목하게 되었다. 편의를 위해 산을 깎고 나무를 심으며 만들어진 도로와 다리, 가로수와 터널은 자연 위에 새겨진 인간의 개입과 시간의 흔적으로 남는



다. 그러나 정돈된 풍경은 시간이 흐르며 다시 무질서한 자연으로 회귀하고, 이러한 반복은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이 힘을 주고받는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작업은 이러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수묵의 물성을 통해 그 관계를 체감하도록 한다. 화면에 남겨진 흔적은 인간과 자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의도와 우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투와 대화의 과정을 담아낸다.

Wanderings Toward Freedom 유(遊) 조인호(96동양)



모교 동양화과 교수 조인호 동문의 개인전 'Wanderings Toward Freedom 유(遊): 자유를 향한 여정'이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전통과 경험을 결합한 현대적 산수화 약 30점이 선보인다. 조동문은 전통 수묵산수의 미학을 바탕으로 직접 보고 걸으며 체험한 자연의 감각과 사유를 화면에 담아왔다. 작가에게 산수는 단순한 시각 대상이 아니라 걸음과 머무름을 통해 재구성되는 '유(遊)'의 공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을 오르내리며 체득한 여러 장면과 기억을 하나의 화면에 결합하는 다시점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는 특정 시점의 재현을 넘어 작가의 내면적 경험을 '심경(心景)'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전시는 자연을 거니는 여정을 따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작가의 사유를 보여준다"며 "전통 수묵이 어떻게 현대적 산수로 확장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꿈이 머무는 숲 임현경(01동양)



임현경 동문의 개인전 '꿈이 머무는 숲'이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전시홀 예술가의 방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지역예술가 전시지원사업 '양재도서관에서 읽는 전시'의 네 번째 전시이다. 임동문은 산책길에서 만난 나무와 빛, 계절의 변화와 일상의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비단 위에 천천히 불러낸다. 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집 근처의 산책길,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의 잎사귀들처럼 그녀의 이상향은 꿈속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서 관객은 꿈속의 이상향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었지만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선한 풍경을 다시 만나게 된다. 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개인전 10여 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Dream, Love, Hope 우민정(04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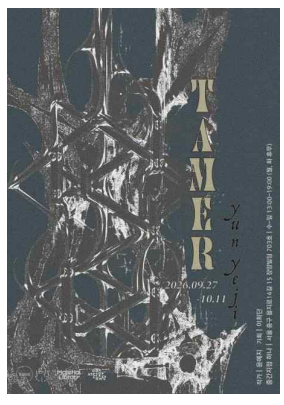
우민정 동문의 개인전 'Dream, Love, Hope'가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종로구 삼청동 갤러리조선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추락 이후의 시간을 그렸다. 이전 작업에서 벌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끊임없는 시도를 탐구해 온 우민정 동문은 마침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벌들이 불타 재가 되어 떨어진 뒤의 풍경으로 시선을 옮겼다. 추락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마주한 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세계였다. 작가는 이 붕괴의 순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흩어진 자신을 다시 붙잡으며 삶을 이어가는 재생의 과정이다. 그 중심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 꿈, 희망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회화와 흙 작업, 그리고 관객에게 전해지는 엽서는 이러한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매개가 된다. 결국 이 전시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신념보다, 어떤 추락도 끝내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오래된 힘인 사랑, 꿈, 희망을 다시 붙들 것을 제안한다. 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뿌리의 하늘 Root Sky 박주영(07서양)



박주영 동문의 개인전 '뿌리의 하늘 Root Sky'가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영은미술관 제4전시장에서 열린다. 영은창작스튜디오 13기 입주 작가인 박주영 동문은 일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흐름과 그 순간 마주한 시공간적 경험을 '획(劃)'이라는 조형 언어로 화면에 담아낸다. 한국어에서 '바람'이 지닌 두 가지 의미처럼, 작가는 순간의 바람(wind)과 마음속 바람(wish)을 연결하며 일상의 풍경 속에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펼쳐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익숙한 풍경 너머에 존재하는 숨겨진 공간과 시점의 변화를 통해 안과 밖, 아래와 위, 평면과 입체, 획과 리듬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작업실에서 바라본 광활한 하늘과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은 작가 내면에 뿌리내린 바람과 만나며,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회화적 풍경으로 표현된다. '뿌리의 하늘 Root Sky'는 '획과 바람'이라는 작가의 조형적 언어를 따라 삶의 순간과 시간이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tamer/멈추지 않는 손 윤예지(16서양)



윤예지 동문의 개인전 'tamer'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멈추지 않는 손'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중간지점 하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물질과 재료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유해온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의 첫 번째 기획 전시 프로그램 '뉴본'으로, 첫 프로젝트에 참여한 윤예지(16서양), 김륜아(15서양), 이희단(15서양) 세 명의 동문은 창작자와 기획자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재배치하여 일종의 게임이자 집단적 사고 실험,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기획이자 한 작가의 개인전이 되는 새로운 관계 구조를 실험한다. 창작과 기획, 작품과 작가적 페르소나, 작품과 전시 사이의 역할 분담은 하나의 극을 만드는 과정과 닮아있는데, 연출자이자 극작가에 가까운 김륜아와 이희단은 프롬프트를 써내려가고, 연기자 위치의 윤예지가 주어진 지문을 수행하지만, 프롬프트가 무대로 옮겨지는 순간 주어진 대사는 변형되고, 지시는 벗어나며, 자신만의 애드리브를 구사할 권리와 함께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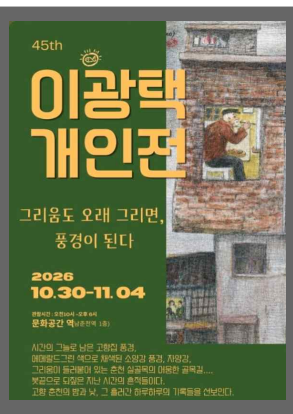
광광순례: 추상의 순환 그리고 자연 산책 나오미 군지(86동양)

영은미술관과 레지던시 작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광광(廣光)순례: 추상의 순환 그리고 자연 산책>에 초대합니다. 미술관 투어부터 나오미 군지 동문과 함께하는 염색 체험까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300 메일: ymuseum@daum.net

- 프로그램 기간: 2026.10.21.~11.25 (총 14회)
- 대상: 유치부~성인 (유치부~초등부 보호자 동반 참여 필수)
- 장소: 영은미술관 전시장 및 교육동(주말은 닻미술관 투어 추가)
- 인원: 회차당 평일20명, 주말25명씩(정원 초과시 대기자로 등록)
- 접수기간: 정원 모집 완료 시 마감 (참가비 무료)
- 신청링크: https://forms.gle/eMBVM4ZKwn9Ruvzu8
- 문의: 070-7734-5607, 031-762-4137 (담당자: 이지은, 한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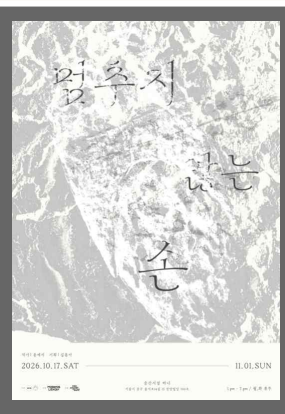
10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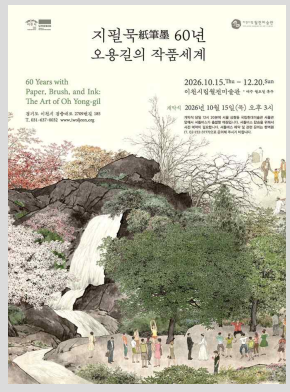
그리움도 오래 그리면, 풍경이 된다
이광택(80회화)
10.30-11.4
남춘천 문화공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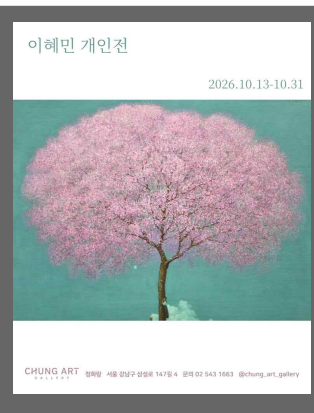
선과 색, 지역의 기억
유희영(58회화) 외
10.21-27.1.31
대전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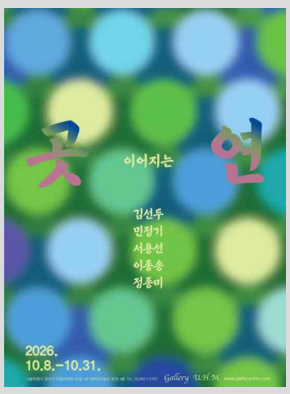
멈추지 않는 손
윤예지(16서양)
10.17-11.1
중간지점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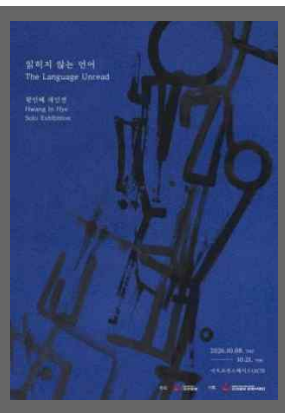
지필묵 紙筆墨 60년
오용길(65회화)
10.15-12.20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혜민 개인전
이혜민(74응미)
10.13-10.31
청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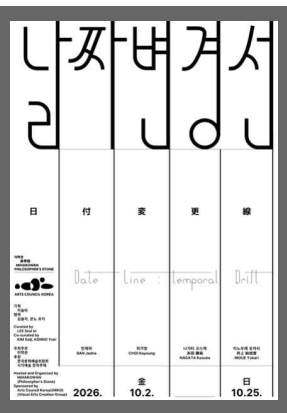
곳 이어지는 연
민정기(68회화) 외
10.8-10.31
갤러리 U.H.M.



읽히지 않는 언어
황인혜(65회화)
10.8-10.21
아트조선스페이스(A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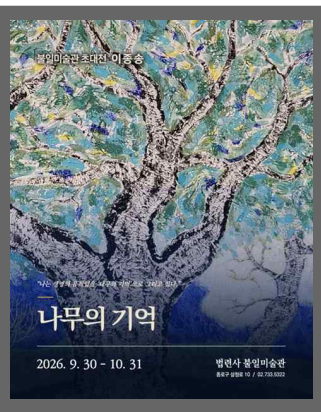
Awe:경이의 낙원
박덕실(81회화)
10.7-11.5
판교사회종합복지관 갤러리카페



날짜변경선
최가영(08동양) 외
10.2-10.25
미학관



Memento Mori
김남표(91서양)
10.1–10.24
나마갤러리



나무의 기억
이종성(83동양)
9.30-10.31
불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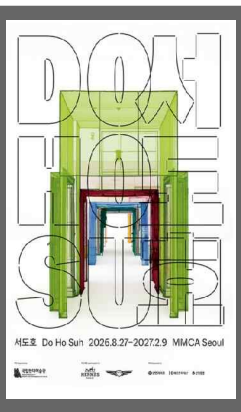
화가의 정원
선우항(91서양)
9.3-10.28
신촌 세브란스병원



To the Island
심문섭(61조소)
9.1-10.22
롯데갤러리 잠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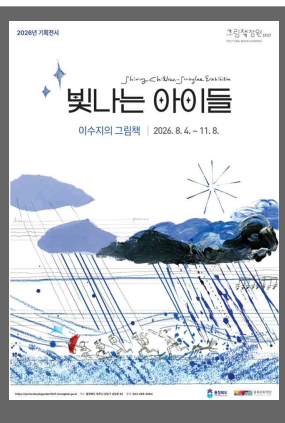
오윤
오윤(65조소/1946-1986)
8.27-27.2.14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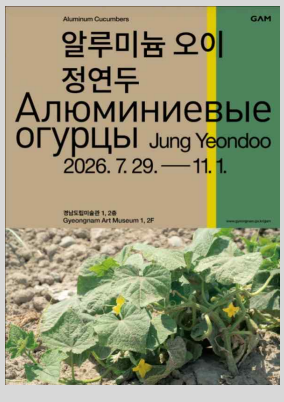
서도호
서도호(81회화)
8.27-27.2.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휴먼 에러
오인환(77조소) 외
8.13-10.2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92서양화)
8.4-11.8
금산갤러리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88조소)
7.29-11.1
경남도립미술관



화가 김종학
김종학(56회화)
7.22-10.31
강릉시립미술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유영국(교원)
5.19-10.25
서울시립미술관

음악피정 원영배(74조소)

미국 LA지역에서 '노래하는 부제'로 잘 알려진 원영배 동문이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대학로 소재 바오로딸 혜화나무에서 음악피정을 연다. 이번 음악피정 '음악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혜화나무 6주년 감사행사로 마련됐다. 18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원영배 어거스틴 부제는 미국 Los Angeles 대교구 소속 종신부제로 St. Bede성당에서 봉사하며, 교정사목과 CLC 공동체를 통한 사회정의 사목에 참여하고 있다. 모교 조소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다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원동문은 1991년 찬미그룹 '찬미사랑(Praisephile)'을 창단한 이래 35년간 찬미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성바오로 수도회,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 찬미성가 및 전례 성가와 성탄캐럴, 시편 묵상기도, 묵주기도 등 교회전례와 개인 신앙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음반



을 만들어왔다. 주요 음반으로는 '당신을 향한 축복의 노래(Blessing Song)', '친구여 깨어나라(라자로의 증언/아름다운 빛을 향하여)' 'Here I Am(나네 곁에)'등이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라캐나다(La Cañada) 지역 세인트 비드(St. Bede) 성당 사목이며, 유튜브 '찬미사랑' 채널(말씀과 음악 선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교회에서 사제가 되기 직전 거치는 '일시적 부제'와 달리, 종신부제(Permanent Deacon)는 평생 부제직에 머무르며 교회의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고유한 성직 품계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어린이 도서 기부 박상희(81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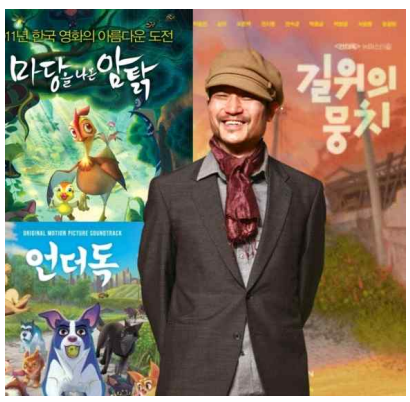
어린이 도서 전문 출판사 비룡소 대표인 박상희 동문이 지난 9월 3일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도서 642권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전 세계 동시 출간되는 '그루팔로' 시리즈의 신작 '할머니 그루팔로와 이야기꾼 생쥐'의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글로벌 기부 프로젝트의 국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동문은 "이번 글로벌 기부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만나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룡소는 양질의 어린이책을 통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부 도서는 신작 '할머니 그루팔로와 이야기꾼



생쥐'를 비롯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줄리아 도널드슨·악셀 세플러의 대표작 등으로 구성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번 기부를 통해 투병 중인 환아들이 병원에서도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치료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국내외 소외계층 어린이와 어린이병동에 입원한 환아들을 위해 카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에 배부된다.

'길 위의 뭉치' 개봉 오성윤(82회화)

애니메이션 감독 오성윤 동문의 '언더독'이 4K 버전 '길 위의 뭉치'로 재탄생해 지난 8월 19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됐다. 유기견들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길 위의 뭉치'는 주인에게 버려져 떠돌이 신세가 된 개 '뭉치'가 다른 유기견 무리를 만나 자유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오성윤 동문은 "언더독이 흥행에 실패하고 몇 년 동안 병을 앓을 정도로 크게 힘들었는데 다시 하게 돼 반가웠다"고 했다. '길 위의 뭉치'는 재편집을 통해 기존 102분 분량을 93분 길이로 줄이며 주제와 메시지도 선명히 했다. 각 배우의 대사 전달력을 높이고 음악을 보완하는 작업도 거쳤다. 뭉치 역의 도경수를 비롯해 밤이 역의 박소담, 짱아 역의 박철민, 개를 잡으려는 사냥꾼 역의 이준혁 등이 목소리 연기를 했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오동문은 대학 재학 중에는 장소가 한정된 예술인 미술에 답답함을 느꼈고, 오히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접



한 연극에 관심을 가졌다. 대학 졸업 후 노동영화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던 것을 계기로, 1989년부터 애니메이션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후 '둘리의 얼음별 대모험', '영혼기병 라젠카', '고인돌', '누들누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등의 작품들을 기획하고 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르며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최고의 흥행고를 올렸다. '언더독', '캐리와 슈퍼콜라', '불꽃놀이', '언더독'를 연출했으며, '시체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 Gertie 어워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삼신할미 출간 이강(석01동양)

이강 동문이 그린 '삼신할미' 개정판이 지난 9월 18일 발간되었다. 이 책은 봄봄출판사의 '우리 설화 그림책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대표적인 우리 구전 신화 중 하나다. 탄탄한 줄거리와 개성 있는 인물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한다. 제주도에서 전해져 오는 '삼승할망본풀이'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여러 구전 자료를 참고하여 서정오 작가가 본래 이야기가 다치지 않고 구전 신화가 가진 입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이강 동문은 화려



하고 환상적인 신화 이야기를 특유의 그림체로 잘 살렸다. 이동문은 1968년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나 연변대학교 미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미르예술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그림)로는 '청룡과 흑룡', '조웅전', '나무도령', '임진록' 등이 있다.

100일의 거짓말 출연 감우성(89동양)

배우 감우성 동문이 지난 10월 10일 첫 방송된 tvN '100일의 거짓말'에 출연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감동문의 드라마 복귀는 2021년 방영 2회 만에 강제 종영된 '조선구마사' 이후 5년만이다. 전편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바람이 분다' 이후 7년 만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100일의 거짓말'은 밀정이 된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와 조선총독부의 엘리트 통역관이 적의 심장부에서 마주하며 벌어지는 100일간의 첩보 로맨스로, 시청률 5.3%로 출발한 드라마는 2회 만에 7.6%까지 치솟았다. 감우성 동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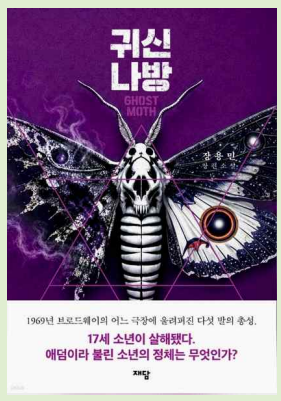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과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1991년 MBC 2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 역으로 2006년 대종상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왕의 남자', '알포인트, '결혼은, 미친 짓이다'와 드라마 '내 생애 봄날', '키스 먼저 할까요?', '연애시대', '현정아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예감' 등이 있다.

귀신나방 개정판 출간 장용민(89공예)



장용민 동문의 소설 '귀신나방'이 지난 7월 31일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8년에 출간되었으나 판권이 만료되어 절판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SNS에서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도파민 터지는 미스터리 소설'로 소개된 후 도서관 대여 순위 1위를 찍으며 역주행 했다. 중고책 가격이 무려 12만 원까지 치솟았다고도 한다. 끊임없는 러브콜에 힘입어 돌아온 귀신나방은 인류 역사상 희대의 악인으로 불리는 이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죽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한 이야기를 장용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짜임새



있는 전개를 통해 현실과 허상 사이 그럴싸한 팩션의 세계로 재탄생시킨다. 장동문은 모교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교 졸업 후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동명의 소설을 집필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명계산시계', '마지막 사도', '궁극의 아이', '불로의 인형', '귀신나방', '극의 아이 2 -넥스트 차일드' 등 다수의 미스터리 소설을 발표했다. 뛰어난 상상력과 치밀한 구성, 방대한 스케일로 무장한 그의 작품은 대한민국 오리지널 미스터리와 스릴러소설에 갈증을 느끼는 무수한 독자들을 매료시켰으며, 국내 장르소설계를 대표하는 확고부동한 소설가로서 자리매김했다.

몽유도원도 장훈(장형석/99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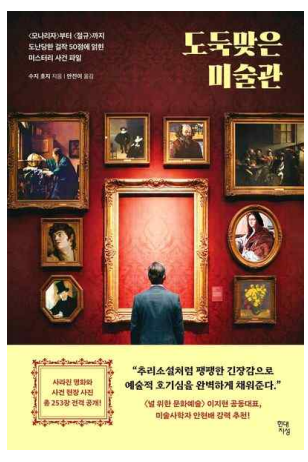
영화감독 장훈 동문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몽유도원도'가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장동문의 5번째 장편 영화로, '택시운전사' 이후 약 9년 만의 신작이다. 장동문의 신작 '몽유도원도'는 그림 '몽유도원도'가 완성된 후 각기 다른 도원을 꿈꾸게 된 형제 '수양'과 '안평'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보았던 이상향, 도원의 풍경을 화가 '안견'에게 구술해 3일 만에 완성된 그림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드라마틱한 운명을 마주한 조선 왕조의 순간을 담는다. 김남길과 박보검, 이현욱 등 존재감 있는 배우들이 조선 왕조의 운명을 둘러싼 인물들을 연기, 치열하고도 역동적으로 전개될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몽유도원도'는 장동문이 처음 연출하는 사극



영화로, '몽유도원도'를 통해 장동문이 그려낼 조선의 시공간과 인물들 또한 기대를 모은다. 장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각종 영화의 연출부부터 영화계 생활을 시작해 영화 '빈 집', '활'의 연출부로 영화계에 입문했으며, 2006년 '시간'의 조감독을 거쳐 2008년 '영화는 영화다'로 데뷔했다. 2010년 두 번째 장편 '의형제'에서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출력을 자랑하며 한국영화를 이끌 차세대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218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를 비롯, '고지전'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인상적인 작품을 선사해오고 있다.

도둑맞은 미술관 안진이(01서양)

안진이 동문이 번역한 '도둑맞은 미술관'이 지난 8월 31일 출간되었다. '도둑맞은 미술관-모나리자부터 절규까지 도난당한 걸작 50점에 얽힌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영국의 미술사학자 수지 호지가 저술하고 안진이가 번역한 도서로, 세계에서 일어난 24건의 미술품 도난 사건을 다루며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독특한 미술 교양서다. 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뭉크의 '절규'부터 반 고흐의 그림,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까지 우리가 익히 아는 걸작에 숨겨진 '도난의 미술사'를 조명한다. 나치의 대규



모 약탈, 마피아가 개입한 조직범죄, 수년간 이어진 몸값 협상, 미술품 탐정의 활약 등 추리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 사건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안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슨트처럼 박물관 걷기', '화가들의 꽃', '컬러의 힘', '보는 눈 키우는 법',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등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대상 수상 배상민(박06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배상민 동문 연구팀이 개발한 태양열 기반 정수·담수화 장치 '솔라스틸 박스'가 10월 15일 싱가포르 캐피톨 극장(Capitol Theatre Singapore)에서 개최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디자인 콘셉트' 부문 시상식에서 '사회적 임팩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 가운데 배동문팀이 받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각 부문에서 가장 혁신성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최고의 대상이다. 배상민 교수는 "디자인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것



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학사 및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인 배동문은 27세에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 뉴욕 '스마트 디자인' 및 '데스키' 디자이너, 롯데 지주 디자인경영센터장을 역임했다. 코카콜라, 3M, 코닥, P&G,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기업 디자인 프로젝트 총괄했으며 현재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이다. 대표 저서는 '나는 3D다'이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포함한 50여 회를 수상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단독공연' 나잠수(나진수/03디자인)

나잠수 동문의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Sultan of The Disco)'가 오는 12월 5~6일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7년 만에 단독 콘서트 '풍류고생 : 차라리 춤추다 죽겠어'를 펼친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나잠 수(보컬·키보드), J.J 핫산(댄스·MC), 김간지(드럼), 지(베이스), 홍기(기타)로 구성된 5인조다. 2014년 한국 뮤지션 최초로 영국 세계 최대 야외 음악 축제인 'Glastonbury' 공식 무대에 오르는 등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다. 예매는 10월 15일 오후 12시부터 놀티켓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9년 발매된 정규 앨범 'Easy Listening For Love'가 처음으로 바이닐 레코드로 제작된다. 기존 수록곡



을 포함해 2020년 발매한 싱글 'Waiting For Your Calling Back'도 함께 담아 총 700장 한정으로 제작되며,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PUBG 성수에서 열리는 서울레코드페어 현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나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 정보융합과를 수료했으며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리더이다. 붕가붕가레코드 수석엔지니어/프로듀서를 거쳐 현재 웜우드힐 스튜디오와 독립전시기획 '가이드밤'을 운영하면서 크로스섹션 아트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 중이다.

'빛 아래 선 한글' 개최 김현일(06동양)

백악미술관 관장 김현일 동문이 일중기념사업회와 서예가 일중 김충현(1921-2006) 선생의 서거 20주기 추모전 '빛 아래 선 한글'을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백악미술관 전관에서 연다. 김충현 선생의 대표 한글 비탁본을 모은 첫 전시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부터 '김구 동상명'까지 약 30점을 선보인다. 광복 뒤 시작된 한글 비의 흐름을 대표한 작가의 글씨를 연대순으로 살핀다. 김충현 선생은 1947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시작으로 1996년 절필할 때까지 200여 개 한글 비문을 썼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는 해방 뒤 세워진 첫 한글 비다. 전시에는 '윤봉길 의사 고향 기념비', '사육신비', '충정공 민영환 동상 고결서' 등이 포함된다. 서울 남산의 김소월 시비와 백범 김구 선생 동상명도 볼 수 있다. 김충현 선생의 한



글 고체는 1958년 '옥포 대승첩 기념탑명'에서 처음 발표됐다. 작가는 기념비에 쓰기 어려운 궁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선적 형태와 획의 굵기 변화를 활용했다. 김충현 회고록 '예에 살다'에 언급된 작품을 관련 글과 함께 배치했고,'사육신비'를 쓸 당시의 한글 철자법 논쟁과 민영환 동상 고결서 판독 논쟁도 다룬다. 김충현 선생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글 서예 교본 저술에 힘썼으며, 2004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백악미술관은 김충현 선생이 1983년에 설립한 서예 및 문인화 전문 전시 공간이다. 김충현 선생의 손녀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대학원 미술경영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일중의 집 '보현재'와 백악미술관을 운영하면서, 2024년 서울대미대동창회에 백악미술관 2층 장소를 제공해 현재 S-미술아카데미가 운영 중에 있다.

내가 키운 S급들 비완(최윤경/06조소)

최윤경 동문이 2021부터 현재 연재중인 '내가 키운 S급들(네이버웹툰)'이 네이버웹툰의 릴레이 팝업 3번째 주자로 선정됐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 도파민스테이션에서 '던전 브레이크 : 용산'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내가 키운 S급들'은 잘나가는 S급 동생 한유현의 발목만 잡던 F급 헌터 한유진이 동생의 죽음으로 회귀한 뒤 '완벽한 양육자' 칭호를 얻고, 자신이 키우는 S급 헌터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현대 판타지 헌터물이다. 작품은 근서 작가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글로벌 누적 조회수 7억 8천만 회를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팝업은 용산역에 정체불명의 게이트가 열렸다는 설정으로 구성돼, 방문객이 F급 헌터 한유진과 그가 키운 S급 헌터들의 세계관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아크릴 스탠드, 캔뱃지, 키링 등 신규 MD 50종을 비롯해 단행본, 콜렉팅 카드 '내가 키운 S급들 하이라이트픽', 팝업 운영 기간 현장 키오스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포토카드 10종 등이 판매됐다.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임 3종도 마련했다. 최윤경 동문은 웹툰 작가이자 미술교사로 근무중이며 필명인 비완은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에서 따왔다. 작품으로는 '매지컬 고삼즈(네이버웹툰)', '그녀의 심청(저스툰)', '수신학원 아르피엘(카카오페이지,배틀코믹스)', '내가 키운 S급들(네이버웹툰) 등이 있다.

<삭제된 소년> 국내외 영화제 3곳 선정 현해리(08동양)

영화 제작사 무암(MooAm) 대표 겸 감독 현해리 동문의 오리지널 장편영화 '삭제된 소년'이 대만 '가오슝영화제'와 홍콩 'HKLGFF'에 이어 '2026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SIPFF)' 코리아 프라이드 장편부문에 공식 선정됐다. 이로써 작품은 국내외 영화제 3곳에 잇달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삭제된 소년'은 학생의 죽음을 외면한 어른과 차가운 시스템의 기록 속에 남겨진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후반 작업에는 무암의 AI VFX 기술이 활용됐다. 2027년 극장 정식 개봉을 앞둔 '삭제된 소년'은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를 통해 국내 관객에게 처음 공개된다. 상영은 오는 11월 7일 'CGV 피카디리 1958'에서 1관에서 진행되며, 상영 후 현동문과 배우 백성현, 신성하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된다. 무암은 오리지널 지식재산(IP) 기획과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AI 하이브리드 시리즈 '젠플루언서'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랑데뷰 섹션에 공식 초청됐으며, 차기 장편영화 '변신금지구역'은 최근 촬영을 마쳤다. 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MBN 매일방송 제작본부 프로듀서를 지냈다. 감독 데뷔작 '계약직만 9번 한 여자'는 칸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됐었다. 주요 작품은 '젠플루언서', '소년', '계약직만 9번 한 여자', '더 롱 비지터', '아파시오나타', '폭락' 등이다. 뉴욕국제필름어워드, 터키 Halicarnassus Film Festival 베스트 필름, GV AI 영화제 대상, 상하이 독립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관악청년축제 MC 강해담(16조소)

강해담 동문이 지난 9월 5일 관악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제8회 관악청년축제 'Gwanak Signal: G-BEYOND'에서 MC로 참가해 활약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청년수도'에 걸맞게 지역 청년과 앞으로 관악S밸리를 이끌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올해 관악청년축제는 단순한 소비형 축제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팝업 운영과 브랜드 홍보 등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형 행사로 마련되었다. 강해담 동문은 서울대 총동아리 회장과 함



께 무대에 올라 관악의 청년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관악청년축제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축제에는 강동문을 포함한 서울대 서예동아리 등이 참여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청년도시 관악'의 모습과 똑 닮았다"고 전했다.

런던 디자인 어워드 수상 홍은진(17동양)

홍은진 동문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 '런던 디자인 어워드(London Design Awards)'를 수상하였다. 수상작인 '토테미오'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귀족 스포츠로 여겨져 온 승마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다. 시각 언어와 정서적 공감을 통해 특정 스포츠에 대한 문화적 인식 자체를 바꾸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런던 디자인 어워드는 국제 시상식 협회(IAA)가 주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창의적인 프로젝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40여개국, 2000여점이 출품됐으며 창의성·컨셉·아이디어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심사위원 38인이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한다. 홍동문의 수상 소감은 지난 7월 글로벌 디자인 매거진 '뮤즈'를 통해 소개됐다. 홍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디자인과를 졸업 후 브라운대학교·RISD에서 미술학 석사를 졸업했다. 그랜드벤처스 소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홍동문은 그랜드벤처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GVC' 설계를 총괄했고, 그랜드벤처스의 투자철학과 비전을 시각 언어로 구축했다. 또한 그랜드벤처스가 만든 스타트업 실험실 '그랜드소호', 시매쓰의 중등 브랜드 '판테라수학' 브랜드 기획을 주도했다.